

제6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공모 당선 작품 소개

이 글은 당 협회가 '90년도 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6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2,894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이번호에는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소개하며 잔여佳作,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최우수



나는 우유를 먹고 자랐다.

경남거제군 수월국민학교
4학년 1반 윤 신 우

나는 우유를 먹고 자랐다.

엄마는 나를 서른 세살에 낳으셨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 보다 늦게 낳으셨으니 젊은 엄마들 처럼 엄마젖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를 분유로 키우셨다.

우유를 먹고 자랐지만 잔 병치레도 하지 않고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서 모유를 먹이는 아이들의 부러움 같은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엄마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쇠젓은 소에게 먹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고 해서 우리집에서 큰 소란이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한다.

그 때 할아버지는 이곳 거제도에 계셨고 아빠 엄마 누나와 우리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1980년 5월 8일에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손자인 내가 태어나서 전화를 받으시고 부산으로 오셨다.

우유를 먹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어멈아 소에게 먹이는 쇠젓을 우리 장손에게 먹일수 없다.”

하고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버지가 장남이시기 때문에 손자가 꼭 있어야만 한다는 할아버지가 장손인 내가 태어났으니 할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먹여서 키울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셨다.

할아버지는 어머니께 젓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을 먹고 꼭 엄마젓을 먹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젓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을 구해서 먹도 몸이 약하신 탓으로 젓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할아버지

생각대로 잘되지 않으시니까 암죽을 끓여 먹이라고 완강하게 나오셨다.

암죽을 끓이는 불편함도 컸지만 잘먹지도 않고 배가 고프니까 어린나는 울고 보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어쩔수 없으셨던지 엄마에게 우유를 먹이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며칠동안 우유를 먹는 나를 지켜 보시면서도 웬지 마음은 안되셨든지 고향으로 내려 가셨다 한다.

그후 나는 할아버지가 그렇게도 싫어하시던 우유를 먹었지만 튼튼하게 자라서 백일을 맞았던 것이다.

손자의 백일에 오신 할아버지는 나를 보고 놀라셨다는 것이었다.

“어멈아 소젓을 먹어도 이렇게 또릿 또릿 하고 튼튼하게 자랐구나.” 하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단다.

그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소젓이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조금만 칭얼 거려도

“애, 어멈아 애기 우유 먹여라.”라고 하시면서 꺾꺾 웃으셨다고 한다.

약

우유의 힘

김제 중앙국민학교
6학년 7반 이 선 영

“한나라의 장래가 부강하려면 그나라 아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침에 배달되는 우유를 마시면 화장실을 여러번 가기 때문에 우유마시는 것이 겁날 정도다.

어머니께서는

“네 장이 약해서 그런것 같으니까 꼭 참고

매일 조금씩 마셔보렴.”하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만큼 양젓의 맛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나와 전혀 다르다.

추운겨울 이른 새벽에도 찬 우유 한두잔을 거뜬히 마신다.

하루 온종일 마셔도 끄덕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무슨 괴물처럼 느껴졌었는데 어제 저녁때

비로소 우유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온 식구가 키와 몸무게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몇년전만 해도 연년생인 오빠와 나의 키와 몸무게가 거의 똑 같았는데, 어느새 키와 몸무게가 10cm, 10kg씩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또래에는 오히려 여자가 빨리 성장한다던데 오빠가 나를 훨씬 앞질러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처럼 의젓해 보여서 속이 상했다.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야, 성훈이가 언제 이렇게 자랐니? 나는 매일 보니까 별로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자랐구나! 우유를 많이 먹은 덕인가 보지. 그리고보니 요즘은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훨씬 튼튼해진 것 같아.”

하시며 오빠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다.

무척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정말 화가났다.

전에는 모두들 나보고 누나같다고 오빠를 놀렸는데...

정말 우유의 힘이 이렇게 큰가? 그렇다!

‘우유만큼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든 음식이 없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었지. 어머니의 말씀대로 매일 조금씩 먹어서 소화시킬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나중에는 나도 오빠처럼 아무때나 아무리 마셔도 고소한 우유맛을 느낄수 있을꺼야.’

마음을 굳게먹고 오늘아침 우유 반컵을 마셨다.

뱃속이 우글우글하고 물 끓는 소리가 났지만 꼭 참았다.

결심을 해서 그런지 다른때보다 견딜만 하고 얼마 뒤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우유 반컵을 마시고 안절부절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애 선영아! 너는 참 행복한 줄 알아라. 옛날이 엄마가 학교 다닐때는 우유가 얼마나 귀했는지. 큰 행사를 치르고 그 상으로 우유 1컵씩 나눠주었을 정도였다. 그때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꿀맛같더라. 그렇게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먹던 우유가 지금은 남아 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니? 우유는 나이가 많은 적은 누구나 먹어서 나쁠것 없다는데 말이다.”

하시며 혀를 꼰꼰 차셨다.

우리는 참 여러가지로 풍족해서 귀하고 좋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걸만 화려하고 우선 입에 단 음식만 찾게 되어 건강을 해치는 짓이다.

서울에 사시는 큰할아버지께서는 우유가 위를 튼튼하게 하며 위장병 치료도 한다고 하셨다.

정말 위장병 뿐 아니라 각종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니까 얼마든지 섭취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비타민이 들어 있어서 살갓을 부드럽게 하고 칼슘이 많아서 이도 튼튼하게 하고 단백질이나 지방도 있어서 근육도 발달시키고 힘도 내게하는 우유를 우리 오빠처럼 열심히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야겠다.

오빠보다 균것질을 많이 하는데 약한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다.

오늘은 학교에서 먹는 우유도 거뜬히 마시고 빈통을 집으로 가져와야겠다.



우수



나는 우유대장

경남거제 오량국교
5의2 홍 석 준

“찌르릉” “와아!”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우유통 쪽으로 달려간다. 전정터처럼 북새통이다. 2교시를 마치는 종이 치면 항상 벌어지는 우유 마시는 우리 교실의 풍경이다.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나는 보람을 느낀다. 나는 우리 반의 우유 당번이다. 하루도 어김없이 우리 반 아이들의 우유를 챙겨주고, 그들의 영양을 책임진 정말 대단한 우유 대장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항상 우유를 마시는 반 아이들의 표정에 관심이 많다.

처음엔 내가 가져온 우유를 맛있게 먹는가, 혹시나 잘못된 우유가 끼여 있어 찡그리는 아이는 없는가 하여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나의 재미있는 습관이 되었다.

언젠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이 밖에서 친구랑 다투고 돌아 와서는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자리에서 큰 병에 가득 든 우유를 숨도 쉬지 않고 벌컥 벌컥 들이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너무나 우스워서 죽을 뻔 했다.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의 우유 먹는 모습은 더 재미나고 별났다.

특히 우리 선생님은 꼭 우유를 입 안에 넣고 껌을 씹듯이 오물거리셨다.

언젠가 우리가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선생님은 지금 우유의 무기질을 잘게 쪼개어 소화되기 좋게 만드는데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우리 반의 몇몇 아이들도 우유를 꼭꼭 씹어 먹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 선생님은 아침을 걸르고 오셨기 때문에 빵을 씹고 계셨던 것이다.

또 우리 반에는 성남이라는 빼빼 마르고 키도 작은 순한 친구가 있다. 얼마나 약하던지 텔레비전 광고속에서 허약한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 이름의 따서 ‘키져라! 세어져라! 미니 성남!’이라고 부른다. 성남이는 어찌나 우유를 싫어하던지 우유를 먹을 땐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표정을 찡그리며 마치 쓴 약을 먹듯이 마신다. 그 표정이 어찌나 우스운지 우리반 아이들은 모두 웃곤 한다. 성남이는 우유에서 나는 비린내가 정말 싫다고 한다.

그래서 성남이는 늘 그렇게 허약한가 보다. 성남이는 내게 부럽다고 한다.

그것은 내가 정말 튼튼한 어린이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 이야기 해 주었다. 성남이도 우유를 나처럼 잘 마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 집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사람들은 우리집이 있는 곳을 절골이라고 부른다.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는 삼년 전 이곳으로 이사왔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는 걸어서 한 시간이나 걸렸었다. 나는 키가 작고 약해서 먼 길을 걷기가 참 힘들었다. 그러나 요즘엔 학교까지 사십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빠는 나와 동생 경섭이가 맑은 공기와 우유 덕분에 참 건강해 졌다고 흐뭇해 하신다. 전학오면서 부터 받아 먹기 시작한 우유 덕분에 나는 참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된 것이다. 우리 집에는 여러종류의 개가 있다.

사냥도 하고 집도 잘 지키는 좋은 내 친구들이다. 그 중에서 포인트종류인 번개를 제일 사랑한다. 언젠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아

세 개나 남은 적이 있었다. 이틀동안 우유가 교실에 그대로 있더니 그 날 선생님께서 우리집의 개를 생각해 내시고는 그 우유를 내게 주셨다. 번개에게 부어 주었더니 번개는 그릇 밑 바닥까지 훑아 가며 맛있게 먹었다. 아주 빠른 우리

번개도 나처럼 우유를 좋아 하는가 보다.

“찌르릉”

이교시 종이 치면 아이들은 내게 소리 친다.

“우유 대장, 우유 먹자!”

○우유와 명언

● 한나라가 그 장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여두는 일이다.
- 윈스턴 처칠 -

● 그대의 음식으로 그대 가족의 음식으로 그리고 그대 아내의 음식으로 우유를 먹여라.
- 솔로몬 왕 -

● 소는 인류의 유모이다. 인류는 옛날 힌두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생명을 지켜주는 힘을 이 친절하고 유익한 동물에게서 얻어왔다.

- W·D 호드 -

● 백악관의 식탁에 하루도 우유가 빠지는 날이 없게 하자.

- 존·F·케네디 -